

## 떼제- 2013년 네 가지 제안

### 하느님(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샘터를 찾아

지난 해 베를린에서 발표된 편지 “새 연대를 향하여”(라 모라다 혹은 인터넷에서 [www.taize.fr](http://www.taize.fr)) 는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모색하는 바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3년 한 해 동안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샘터를 찾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교종 베네딕도 16세가 제창한 “신앙의 해”도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 여기 네 가지 제안을 합니다.

*f. Alois*

#### 첫 제안

#####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해 얘기를 나눕시다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입니까? 어디에서 삶의 기쁨을 찾을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이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판에 박힌 신앙 형식에 그 답을 다 담아 낼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하느님(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느님께 대한 물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개인성이 강조되는 것에는 궁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인격과 자유 그리고 자율성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눈에 띄게 자리잡은 사회에서 조차 하느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덜 당연시되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결심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사람이 일찍이 본 일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1디모 6,16). 사도 바울로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아주 의미있게 와 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읽어 낼 수 있을까요?

다른 신자들, 불가지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과 이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함께 모색해 봅시다. 신앙과 회의를 가르는 경계선은 믿지 않는 이들뿐 아니라 믿는 이들 사이도 통과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느님의 초월성을 더 잘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개념 안에 가두어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하느님을 볼 수 없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본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입니다” (골로 1,15)라고 그 사도 바울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하나이셨고 분리도 혼합도 없이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이 역설적인 표현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역사상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는지요! 이 표현은 우리의 개인적인 모색과 추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리켜 주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존재와 행위를 통해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느님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고 하느님 안에 계신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마음 속에 하느님의 생명을 보물처럼 가져다 놓으시려 오십니다. 이 보물은 바로 인격적인 현존이며 “성령”이라 불리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的 이름은, 하느님은 셋이 하나일 만큼 친교, 관계, 대화, 사랑 등등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결코 진리의 스승이 될 수 없다는 너무나 커다란 역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 제안

###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읍시다

예수께서는 하나의 이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은,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그늘도 없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 별써 많은 이들은 그분을 의심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마르/마가 3,21), “그는 자기를 하느님과 같다고 한다” (요한 5,18).

아무도 그분을 믿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을 갖기 위해서 깊이 숙고하여 결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2천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의 겸손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은 누구에게도 아무 것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회가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존엄성을 되찾아주셨습니다. 또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스스로 무시당하고 소외되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읽으면서 그분을 만납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마태 16.15 참조). 그분은 또 성체성사(성만찬)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환대하는 공동체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친교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치적인 친교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은 그들을 향해 각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 우리는 2015년에 열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신앙의 증거자(증인)들을 바라볼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혼자 혹은 여럿이서 함께 찾아가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증거자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조세핀 바키타, 디트리히 본회퍼, 마더 테레사, 오스카 로메로, 알렉산드르 멘, 그 밖에 많은 이들의 전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은사를 지닌 아주 다양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내적 어둠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두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얘기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있었기에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지닌 최고의 장점이 꽂피어났던 것입니다.

## 세번째 제안

### 하느님께 의지하는 길을 찾읍시다

하느님을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거나 더 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정과 출발점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 좌우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른 분”에게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으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침묵 가운데 경배하는 것은 성찰과 이해에 자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 앞에 그리고 그 신비 안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멈추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안식”의 순간들을 마련하는 것, 매주 두어 시간씩 가장 가까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느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지역 교회와 더불어 매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이 모두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머무시게 됩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내적 생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빛과 어둠, 기쁨과 두려움, 신뢰와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남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경험할 때, 혹은 창조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창의성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이런 경험들은 불현듯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런 순간들은 심지어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도 어디선가 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놀랍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과 단순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이별과 관계의 단절, 예기치 않은 변화를 겪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지속성과 참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내적 모순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 네번째 제안

### 두려움 없이 미래와 다른 이들을 향해 열린 자세를 가집시다

믿음의 확신은 우리를 폐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미래를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용기있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미래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그분과 우리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결속시키주는 주는 닻과 같습니다. 복음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추측의 여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두려워 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신뢰는 마냥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신뢰는, 인류 안에 존재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까지 자리하고 있는 악을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길, 감사와 희망의 눈길, 아름다움을 보는 눈길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하느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세기의 성 그레고리오와 함께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저 너머에 계신 당신, 그 누가 당신을 다 알 수 있으오리까? 숨쉬는 모든 만물이 당신을 경축하며 모두가 당신을 애탏게 그리나이다.”

# 키갈리에서 로마까지, 신뢰의 순례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뢰의 순례”가 개최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1995년)와 케냐의 나이로비(2008년)에 이어서 떼제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개최한 국제 모임이었습니다. 르완다 전역과 주변 국가들은 물론, 동아프리카와 더 멀리서부터 35개국 8천 5백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했고 4천여 가정에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키갈리 모임 직후 저는 두 명의 형제들과 함께 콩고 공화국 북부 키부(Kivu) 지방의 고마(Goma)를 방문했습니다. 정세 급변으로 수만 가정의 난민이 몰려든 시기였습니다.

르완다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과 상처가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들을 친 자녀처럼 돌보아 준 분들 같이 자비심을 보이고 치유를 가져다 준 분들에게 탄복합니다.

르완다에서 우리가 배워 온 것은 무엇보다 화해의 요청입니다. 교회는

억지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화해하는 보다 깊은 차원의 화해를 이루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요청입니다. 양립하기가 어렵게 보이고, 어쩌면 양립할 수 없는 것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거나 그냥 기다리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았으니,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적대적인 것처럼 보인 것을 화해시키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비탄의 극한 상황에 처한 고마(Goma)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증거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혼돈과 두려움, 포기의 상황을 신앙의 힘으로 꿋꿋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사람들을 맞이하는 장소로 남아 있는 모습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젊은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의 활기찬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역동성은 희망을 건지하라는 복음의 격려와 같습니다.

로마에서 열린 유럽 모임은 유럽 전역은 물론 다른 대륙에서 참가한 젊은이들이 함께 신앙의 원천에 대해 묵상하고 로마의 주요 바실리카에서 기도하며 사도들의 무덤과 카타콤바에 순례하면서 2천년 동안 대대로 신앙을 전수해 온 지역 교회를 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모임의 둘째날, 정교회, 가톨릭 및 개신교 신자 4만 5천 명이 성베드로 광장에 모여 교종 베네딕도 16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폐제의 노래와 성경봉독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으로 이루어진 아주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보름달에 막 떠오르는 순간, 부활의 징표로 각자가 손에 든 촛불 수만개로 광장은 환히 비추어졌고, 젊은이들은 교종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

2012년에 우리가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2013년에는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귀기울이려고 합니다. 10-11월에 저는 몇몇 형제와 함께 아시아 몇 나라에서 순례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서울과 인도의 바사이와 룸바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나라들을 찾아가 우리의 연대를 표시할 것입니다.

---

백 여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이스탄불에 가서 2013년을 시작했습니다.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우스 종대주교와 이스탄불의 여러 교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의 공현 대축일 (주현절)을 경축했습니다.

25개국 출신에 여러 교파에서 모여 온 청년들 모두에게 이곳에 공통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소중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신앙이 신경(Credo)의 형태로 표현되었고, 거기서 일부 교부들은 성서를 몰랐던 문화를 향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개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소수의 변두리가 된 사회 안에서 소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틀레헴의 비천한 마굿간에서 세상과 창조 전체를 비추었던 주현절의 빛의 징표입니다.

로마에서 열린 젊은이들의 유럽 모임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기도  
2012년 12월 29일



## 알로이스 수사의 인사

지극히 공경하는 교종님,  
오늘 우리의 “범세계적 신뢰의  
순례”가 중요한 한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전역과 다른  
대륙들에서 모여왔고, 또한 여러  
교회와 교파 소속입니다. 우리를  
분리하는 것 보다 우리를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의  
세례와, 같은 하느님(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치시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교종님과 함께 이 일치를  
경축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일치는  
비록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실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일치는  
깊어집니다.

로제 수사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분열이 신앙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화해의 길을 열었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그 길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증거에 영감을 얻어  
자신의 삶으로 화해를 실현해가기를  
기대하며, 이미 화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화해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친교의 중인이 될 수 있고, 인간들  
사이에 새로운 연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찾는  
것이 이 과정에서 기초가 됩니다.  
기도의 에큐메니즘은 손쉬운 용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리  
면에서 쉽지 않은 상호 경청과 진정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로제 수사가 폭력의 희생이  
되어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가 바로 공경하는 교종님께  
보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 공동체가  
교종과님과의 친교와 일치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자 함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교종님의 뒷받침은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소중한 동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종님 자신과 교종님의 성무에  
대해 우리 마음에서 우리나라온 깊은  
애정을 다시금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달 전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우리가 개최한 젊은이

모임에 참석했던, 수많은 아프리카 청년들의 희망을 그들을 대신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콩고와 북부 키부를 포함해 35개국에서 모여와 ‘화해와 평화의 순례’를 하며 결단하고, 함께 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활력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아프리카 청년들은 그들이 간직한 희망의 상징으로 우리가 소르고

씨앗을 가져가 유럽에 심어주기를 청했고, 더 나아가 그 씨앗들이 유럽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공경하는 교종님, 그들을 대신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희망의 씨앗을 르완다의 전통 바구니 “아가세케”에 담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티칸 정원에 심어주신다면, 거기서 아마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교종 베네딕도 16세의 말씀

친애하는 알로이스 수사님, 따뜻하고 애정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신뢰의 순례자 여러분, 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의 무덤 곁에서 기도하기 위해 유럽 전체와 다른 대륙들로부터 많은 수가 여기에 왔습니다. 사실 두 사도는 바로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두 사도를 움직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이 순례에 나서도록 이끈 믿음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샘터를 찾아서 일상 생활 가운데 그것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결단은, 또한 지난 10월에 우리가 시작한 ‘신앙의 해’라는 취지에도 부응해 주신 것이기에 저는 이 점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폐제의 유럽모임을 로마에서 개최한 것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 기회에 저의 전임자이신 복자 요한바오로 2세가, 세번째 로마 모임에서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교종은 이 신뢰의 순례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뢰의 순례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70여년 전 로제 수사님이 폐제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폐제로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수사님들은 기도 안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로제 수사님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는 이 젊은이들의 여정을 돋기 위해 이 “신뢰의 순례”를 시작하셨습니다.

로제 수사님은 거룩성(성성)에 바탕을 둔 교회일치정신의 불타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폐제를 거쳐가는 모든 이들이 친교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즘(교회일치운동)을 영적으로 살아내셨던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그분이 삶으로 증거하신 것을 따라 참으로 내면화되고 영성화된 교회일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따라서, 이 일치의 메시지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적인 일치에 이르기 위해, 화해의 길을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가톨릭교회의 번복될 수 없는 결심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확인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정교회나 개신교 신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던시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모인 바로 이 자리에 무덤이 있는 베드로는 답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5-16). 그의 전 생애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강제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된 자유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질문에 답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강력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1요한 3,23) 우리가 방금 들은 성 요한의 편지 본문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에 대해 가장 잘 요약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과 남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진 것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에서 지내는 이 며칠동안,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공동 기도 시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하느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긴 침묵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응답이 자라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둘째 편지에서 말하듯 하느님의 이 말씀은 “어둠 속에 밝혀진 등불”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 마음 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그 말씀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19). 만약 여러분 마음 속에서 샛별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은, 그 샛별이 항상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악과 무고한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회의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 “예”라고 응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마르 마가 9,24)라고 외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싸움 중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거나 고립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친교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로마에서 벼무는 동안, 여러분은 수많은 분당(개교회)과 수도회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고향과 여러 나라로 돌아가면, 저는 여러분이 하느님께서는 부르심과 사명의 다양함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그분 교회의 공동 책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친교의 공동체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 모두의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은사를 통해 성령께서는 교회라는 이 친교의 신비를 형성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 오늘의 세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침묵과 함께, 노래는 여러분의 공동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뼈제의 노래는 요 며칠동안 로마의 바실리카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노래는 기도하는데 비길수없는 도움이요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노래함으로서, 여러분은 그분의 희망의 신비를 향하여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새벽을 앞지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젊은 벗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떼어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빛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 작은 빛이 되도록 불림받았습니다. 세상의 재화를 더 공정하게 나누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정의와 인류의 새 연대를 위해 헌신할 때, 여러분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동시에 또한 남들을 향해 이끄는지를 주위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신뢰의 샘터를 찾아내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득 간직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로마 모임에 즐음해서 각계에서 보내온 메시지들 :

<http://www.taize.fr> 를 보십시오. 한국어 번역은 없습니다.

## 반응과 개인적 증거 (간증)

모임의 개인적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새로운 신뢰라는 주제에 대한 성찰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소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 [echoes@taize.fr](mailto:echoes@taize.fr)



## 제 36회 유럽모임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립니다

2013년 12월 28일부터 2014년 1월 1일까지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 국경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립니다. 이 도시는 유럽 화해의 상징이자 개방적이고  
연대적인 유럽의 상징입니다. 프랑스 쪽에는 알자스 지방이 그리고 독일 쪽 바덴  
지방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2015년 8월:

## 떼제, 새 연대를 위한 대회

떼제 공동체 75주년

로제 수사 탄생 1백주년